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11, 2021 Vol. 789

美 UMC 일각서 동성애 관련 의견차로 더 빠른 결별 촉구

총회 이전에 '분리 계획안' 승인 요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미 연합감리회 총회 모습. ©미 연합감리회

미 연합감리회(UMC) 일부 교회들이 "내년 총회에서 분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원하는 교회들이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UMC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논쟁에 휘말렸고, 이에 따라 교단이 2022년 총회에서 '은혜로운 분리 계획'을 승인할 경우 많은 교회들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UMC의 일부 목회자, 신학 교수, 교회 지도자들은 당초 2020년 5월 열릴 계획이었던 총회가 계속 연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주교들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웹사이트 acalltoGrace.com에 게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도서의 저자가 언급한 바대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으로서

총회의 법적인 해결책을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했다.

이어 "UMC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해치고, 특히 우리의 총회와 이 갈등에 휘말린 성소수자 형제자매들에게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의 삶과 성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지연시키는 데서 야기되는 불안에 대한 목회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교회가 그들의 미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단을 떠나길 원하는 교회는 즉시 그렇

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교단을 떠나 타 교단에 소속되길 원하는 일부 교회와 사역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교들과 연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사역자들과 교회가 그들의 소명을 따를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그들이 적절한 곳에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UMC에 남기로 결정한 이들은 미래의 UMC를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길 바란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다른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보내줄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서한은 주교회의가 온라인 회의를 시작한 2일 공개됐다.

웨스트오하이오 총회 대표인 조지 하워드 주교는 UM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교들이 이 서한에 담긴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UMC의 모든 이들이 사명과 사역을 수행하길 원한다고 믿는다. 주교들이 UMC를 넘어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모든 선택권을 고려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8월 말에 시작될 UMC 총회는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고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운 분

리를 목표로 하는 안건들을 다루게 된다.

비록 UMC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부는 교단의 규율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 가운데는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들의 서품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었다.

CP는 "새로운 교단을 위한 모금 및 성도들이 더 쉽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허용하는 이러한 법안이 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수많은 교회들이 UMC를 떠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감리교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존 맥아더 목사 "설교 표절 목회자는 선지자 아닌 배우"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가 "설교를 표절하는 목회자들은 주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며, 목사 역할을 맡은 배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존 맥아더 목사. ©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최근 오스틴 던컨에서 열린 '2021 마스터스 신학교의 날'(Master's Seminary Day 2021) 연설에서 설교 표절 문제를 언급했다.

맥아더 목사는 "목회자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거룩해진다. 강해설교는 그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당신이 아이패드를 열

어서 다른 이의 설교를 읽을 때, 그 말씀의 거룩함을 맞볼 수 없다. (설교 표절을 할 때) 당신이 목사의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다면, 당신은 주님의 진정한 사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는 정직함이 없다. 그건 사기"라고 했다.

그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이의 설교를 베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놓치게 될

것이다. 목사의 문장이 다른 목회자의 '정확히 진술된 말'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영향력을 회피한 것이다. 스스로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북침례신학교 교수인 스코트 맥나이트(Scott McKnight)는 릴리저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단순한 또 다른 연설이 아니다. 설교자가 읽기, 기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가 표절을 하면 그 과정이 단순화되는데, 이는 '배신 행위'라고 했다.

한편 남침례회 회장인 에드린 트 목사도 전 회장이었던 J. D. 그리어 목사의 설교 중 일부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리튼 목사는 그리어 목사의 설교 중 일부를 그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 그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GBC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 개최

GBC 미주복음방송(am1190)이 개국 30주년을 기념해 온라인과 현장 콘서트를 개최한다.

온라인 콘서트는 오는 11월 21일(주일) 오후 7시(미 서부 시간) '요게벳의 노래'로 잘 알려진 작곡가 엄평안과 찬양 사역자 및 보컬리스트 조찬미, 임성규로 이루어진 CCM 혼성 그룹 '같이 걸어가기'를 초대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콘서트는 당일 유튜브 채널 [HIS KINGDOM MUSIC Official]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콘서트는 '은혜'의 작사/작곡가 손경민 목사와 찬양사역자들(지선 전도사, 이윤화, 김정희 사모, 이기명 전도사)을 미국 LA로 초대해 12월 1일(수), 남가주 동신교회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11일(토)까지 ANC 온누리교회, 샘물교회, 남가주 살롬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선한목자교회, 아름다운교회 등 남

가주 7개 한인교회에서 진행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미주복음방송은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과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온라인과 현장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초대했다.

※현장 콘서트 일정

1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목사: 백정우) 12월 1일(수) 오후 7시30분-8시30분 / 714-680-9556

2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12월 3일(금) 오후 7시45분-9시 / 818-834-7000

3 샘물교회 (담임목사: 정기정) 12월 4일(토) 오후 6시-8시 / 714-749-7770

4 남가주 살롬교회 (담임목사: 김준식) 12월 5일(주일) 오후 5



시-6시 / 310-787-1004

5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고창현) 12월 8일(수) 오후 8시-9시15분 / 310-618-

2222

6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고태형) 12월 10일(금) 오후 8시-9시15분 / 909-591-6500

7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고승희) 12월 11일(금) 오후 6시-7시15분 / 626-810-3455

김동욱 기자



밸리교회, 목회자친선골프대회 개최 밸리교회협의회(회장 조남민목사)는 지난 1일 무어 파크에서 목회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2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이날 대회는 하모세 목사(고백하는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중운목사(새생명중앙교회)가 준우승을 했다. 또 정요한 목사(평통LA협의회 종교분과위원장)가 갤러웨이 골프백을 경품으로 받았다.

크레센터 벨리 고등학교 4학년 김정원 양, 코이노니아 선교회에 재능 기부



크레센터 벨리 고등학교 4학년 김정원 양과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종희 목사가 김 양이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보이고 있다.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로 위로와 치유 전해

크레센터 벨리 고등학교 4학년 김정원 양이 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 후원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기부했다.

김정원 양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티셔츠를 만들었다"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준

비하는 김정원 양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에 10대가 가진 반항심, 자유로움, 호기심, 활기찬 에너지, 희망 등 다양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다.

박종희 목사는 "우리의 세대가 이웃과 지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줘서 감사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나누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GBC 미주복음방송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무기한 연기"

참가 전원 참가비 환불 조치와 찬양활동 격려금 지원 결정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am1190)는 개국 30주년을 맞아 개최하기로 했던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K-Gospel Band Contest)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주복음방송은 "오랜 팬데믹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중단

되고, 더불어 찬양팀과 밴드가 함께 위축되었던 긴 기간을 마감해 가는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컬 밴드 찬양팀을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고자 마련했지만 하였던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가 아쉽게도 COVID19 여파로 인해 행사 및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해 부득이하게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주복음방송은 참가 접수를 한 모든 팀에게는 참가비를 환불함과 동시에 각 팀 별로 소정의 찬양활동 격려금 500달러와 SNS를 통한 사역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주복음방송은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kgbc.com 혹은 전화 714-484-1190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10.10.~2022.01.08.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2022.01.08.까지 by January 08, 2022

- ### 신고·등록신청 방법
-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 By post or e-mail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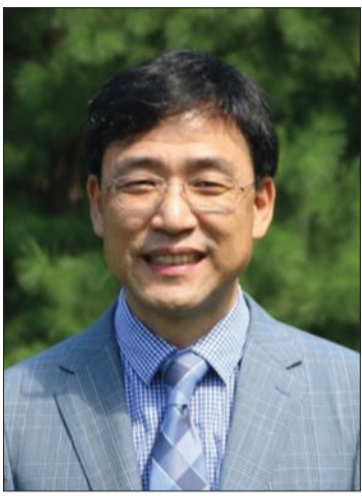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02.23.~02.28.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버지니아 소리교회, 미국 내 50개 개척교회 섬긴다



버지니아 소리교회 김유정 목사

버지니아 소리교회(담임 김유정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에 소재한 개척교회 목회자

들을 섬긴다. 버지니아 소리교회는 미국 내 50개 교회 목회자 부부를 위해 올리브 가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레드 랍스터, 파네라 브레드 등 100달러 상당의 미국 레스토랑 기프트 카드를 보낼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개척 7년 이내 복음주의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근 교회 주보 2부와 함께 교회 설립 연도를 이메일 voicechurch1009@gmail.com 로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최근 개척한 교회부터 우선 발송되며 선 접수도 고려된다. 김유정牧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목회자분들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한다”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님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하고자 목회자 부부의 저녁 식사나눔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집에서, 혹은 상가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 부부에게 작지만 기쁨이 되길 원하다”며 “선호하는 레스토랑을 알려주시면 해당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문의 : 571-361-2237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김용준 목사 선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52차 정기 총회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일(화) 52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김용준 목사, 수석부회장으로 홍석배 목사

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남가주 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총회에는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오는 1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추수감사절 연휴 “추억 여행 떠나봅시다!”



물이 빚어낸 우아하고 매끄러운 곡선과 그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의 굴절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엔텔롭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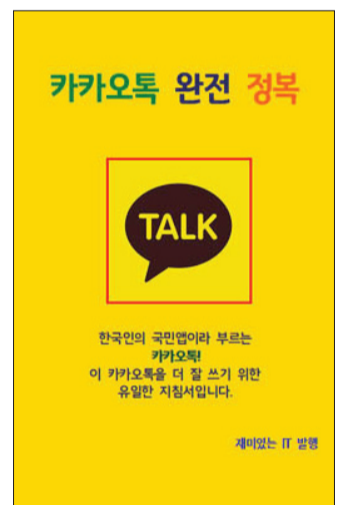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다가온 가운데 가장 수 한인 여행사인 'US아주투어(대표 박평식)'는 추수감사절 연휴 특별상품으로 모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품격 높은 최고급 여행으로 정평이 난 US아주투어는 2021년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2박3일과 3박4일 단기 여행상품으로 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추억여행을 떠나기 좋은 코스들을 엄선해 예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추수감사절 당일 출발하는 특선상품 중 가장 눈에 띄는 코스는 32인승 First Class 버스가 전격 투입된 '모뉴먼트밸리+엔텔롭캐년+파웰호수(4일)'다.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마치 붉은 레이스가 펼쳐지듯 환상적인 협곡의 엔텔롭캐년과 콜로라도 강에 댐을 만들어 생긴 파웰 호수, 바위기둥이 솟은 황무지로 유명 서부영화의 무대가 됐던 모뉴먼트밸리를 알차게 돌아보는 코스다. 이와 함께 레드우드 가 빠곡히 자란 나무숲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레드우드 기차여행(2

일)'은 25일과 27일 두 차례 출발한다. 상쾌한 숲 속 공기와 신비한 기운을 즐기며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녹음과 계곡을 누비는 증기열차도 탑승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그외 US아주투어는 대표 서부 코스인 '그랜드캐년+자이언캐년+브라이스캐년+라스베가스(4일)', '그랜드캐년+라스베가스(3일)', '세도나 안에 숙박하는 '세도나+트롤리+오크릭캐년(3일)',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4일)' '요세미티(3일)' 등 다양한 추수감사절 특선상품을 갖추고 있다. 해외 여행으로는 온천 호텔 2박과 전 일정 옵션이 포함된 '코스타리카(6일)'를 추천한다. 파바론 용암노천온천, 아레날 화산, 보트사파리투어, 화산호수 등 대자연의 품에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에코 여행지다. 박평식 대표는 “코로나 19로 여행이 그리웠던 분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하늘이 높고 청명하며, 춤지도 덤지도 않은 추수감사절 연휴는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 입장에서 추수감사절 특선상품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아주 좋은 여행을 책임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수감사절 특선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213)388-4000 김동욱 기자

[신간소개] 카카오톡 완전정복

한국사람이라면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에는 정말 좋은 기능이 많은데 과연 그 기능의 몇 퍼센트나 사용할까? IT 선교사로 유명한 윤승준 선교사가 '카카오톡 완전정복'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열흘만에 1차분이 매진되어 2차 인쇄를 할 정도로 인기있는 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기능이 많은 카카오톡을 정말 잘 사용하기 위해 실제 사용 예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카카오톡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라고자신 있게 얘기하는 윤선교사는 재아생(재미있는 IT 생활)이라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무료 전자잡지를 매주 발간하여 카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책은 2권에 우송료를 포함하여 \$25이며 한권 추가시 \$10이 추가된다, 책은 돋보기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글씨로 모두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 909-971-7720을 전화번호에 등록하여 카톡으로 신청하면 책구입은 물론 무료 전자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감사의 달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적합해 보인다. 한국으로도 배송이 가능하니 친구,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듯 하다.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진영목사(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민호목사(주리미주대표), 신정민목사(복음전대 대표), 유관직목사(동림교회), 김인식목사(SCC 공동대표)

* 할의 책에 대해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위하여'가 없었다는 복한 강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혜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찬가로 불리는 기적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울립니다.

* 책크라우드: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균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균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기독교문물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번 한번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현) 굽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29

“2021 KIMNET 국제 선교지도자 포럼(2)”

이번 대회에서 강의마다 가장 많이 표현된 단어가 “플랫폼”이다. 이는 기차 정거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의 용어이다. 이를 새로운 선교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터키나 이집트 등의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아굴라’라는 터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아굴라를 중심으로 시장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모임을 갖고, 도시 사회가 아굴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에서 사도바울이 에베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될 때 그 광장도 아굴라 옆에 붙어 있었다.

현대에서는 IT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바로 세계 4대 플랫폼 포털 사이트 회사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다. 세상의 상권이 현재 자기 수중에 물건이 없어도 플랫폼 방식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이런 시대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선교 방식의 시대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선교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으로 교회나 선교 단체의 본부 중심으로 위에서 지시하면 현지에서 따르는 방식의 선교가 축이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인 플랫폼 시스템을 여러 선교 단체장들이 제안했다. 플랫폼의 본질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서로를 만나게 해주는 광장의 기능을 한다. 플랫폼의 매력은 서로 쌍방향, 또는 여러 명이 여러 방향에서 만남과 소통을 이루며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아무나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올려놓고 간다. 또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면 가져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현대적인 자유로운 나눔의 광장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되어 한다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안했다.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열린 마당으로서의 플랫폼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넘어 가야 할 선교적 교회론을 요약하면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컨트롤 타워나, 성도들

이 밀물처럼 잠시 물러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공황의 허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제 쌍방향, 다방향의 만남의 공동체로 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광장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는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함을 제안했다.

필자는 강의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시행하는 면에서 앞으로의 경향에 대한 의구심이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 등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너무 세상의 풍조에 쌓여 세상의 흐름대로 술선수범하여 따라가듯이 선교 방식을 플랫폼 방식으로 펼쳐 가는 것은 아닐까, 과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실된 참 신앙을 형성해 갈 수 있을까? 선교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플랫폼 방식의 정보나 지식 소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쩌면 복제 그리스도인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을 자문해 보았다.

한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모든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자존심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이제 앞으로 세계는 “with Corona” 시대로 갈 것이다.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는 “Win corona” 신앙으로 교회의 선교 부흥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경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신약성경 “마카비 전쟁”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사이에 제법 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통상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간격이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관한 견해에는 이견(異見)이 있습니다. 400년보다 더 짧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기간이 유대민족에게는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패권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주역이 바뀝니다.

이 기간 중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마다 속국을 다스리는 정책이 달랐습니다. 바벨론 이후 강대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지배국 정책에 따라 운명에 결정되는 운명의 부평초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와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역사의 급류에 휘말려 이곳 저곳으로 강제 이주 당합니다. 또 헬라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된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생업을 위하여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로마 등등의 주요 국제도시로 이주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이동은 당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요도시마다 회당이 있었고, 1세기 말에 로마세계에 1천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유대인의 이동과 정착 현상은 1세기 기독교 선교에 결정적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발생한 유대인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함께 신약형성에 또 초대 교회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 시대나 신약성경이 구약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신구약 중간기에 생성된 종교적, 사회적 제도와 문화를 수용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물론 기독교는 허공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

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있었던 삶의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신약 성경도 초대 교회 신앙 문화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기에 배경이 되는 역사와 문화를 살피는 인문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밖의 정세도 혼란스러웠지만 유대 민족 내부도 복잡했습니다. 이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것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마카비 혁명은 민족과 신앙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작된 독립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왕조입니다.

마카비 전쟁은 기원전 167부터 기원전 142년까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 셀레우코스 왕조의 전쟁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헬라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점점 심해진 셀레우코스 왕조의 박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하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기원전 168년 당시 강력했던 로마의 개입으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퇴각해야 했습니다. 귀환도중에 안티오쿠스 4세는 분풀이를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명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아손의 파행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침공한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는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습

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의 제사와 신앙 활동을 금하고 성전과 제사장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유대교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시기가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 처형과 다니엘의 사자 굴 처형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런 만행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에 제사장 마티아스가 다섯 아들들과 함께 군대를 조직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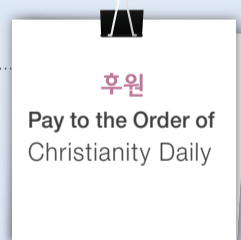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티아스가 죽고, 그의 다섯 아들 중에 가장 용감했던 셋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이어 혁명을 이끽니다. 유다가 이끌었던 혁명군은 게릴라 전술로 연전연승합니다. 3년간의 투쟁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혁명군을 이끌었던 유다의 별명이 망치라는 뜻인 마카비였고, 그래서 이 혁명을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이라는 뜻으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혁명군은 성전에 들어가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정결하고 대대적인 성전 회복식을 합니다. 이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것이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수전절입니다. 마카비 혁명군이 성전을 되찾았지만 예루살렘 성안에는 여전히 셀레우코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혁명군과 안티오쿠스 군대의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격렬한 전투 와중에 유다가 죽고 요나단과 시몬이 형 유다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후에 요나단이 혁명군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하다가 셀레우코스 왕조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전쟁을 끝내고 요나단에게 유대지역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곧 대사장직을 차지하며 유대 전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의 뒤를 이은 넷째형 시몬이 유대를 통치하며 하스몬(Hasmonean) 왕조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미스바 금요성령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왠지 모를 인생의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눌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사탄은 수없이 공격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금요성령집회로 인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스바 금요성령집회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다.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 일정

-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7:30
- 10월 29일(금) 오후 7:30
- 11월 5일(금) 오후 7:30
- 11월 12일(금) 오후 7:30

■ 장소 : 주님의 교회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강사: 최훈 목사
주님의 교회 담임

주님의 교회·예배시간 안내

주일 대예배 매주 주일(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수요 저녁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시

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 교회
The Lord's Church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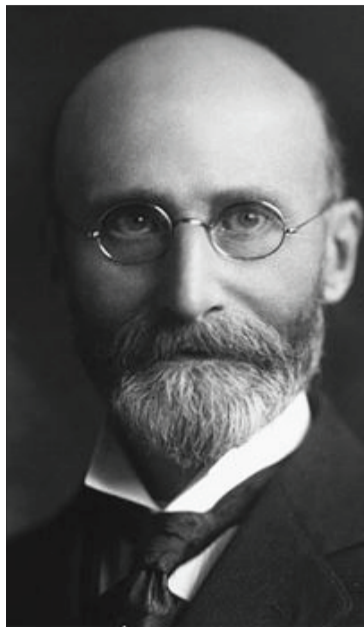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1)

한국 교회사에 선구자적 사역을 담당한 알렌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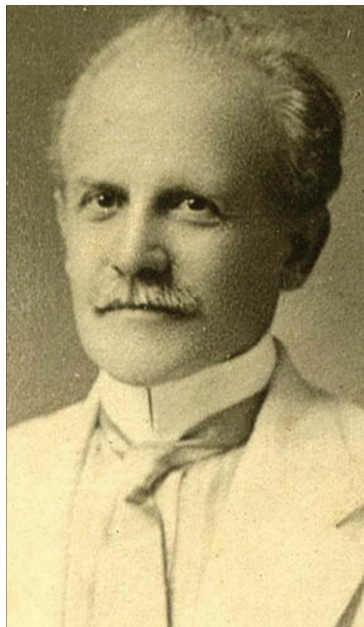
한 나라의 교회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상호 작용하며 흐른다. "역사는 과거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되고 현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며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창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한민족의 시대적 소명은 "통일 대한민국"이며 교회도 역시 동일하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5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그 날을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는 그 통일의 비전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공산체제 하에 억압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2천4백만의 북한 동포들과 그 가운데 신음하며 자유의 날을 갈망하고 있는 그루터기 기독교인들을 기억하며 자유 통일의 날을 함께 품고 나가야 한다.

본 필자는 30여 년 전인 1991. 10. 1일에 중국 단둥 압록강에서 동이 틀 무렵 신의주를 바라보며 이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저 강 건너 동편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그곳에 떠 올라 저 북녘의 동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기도가 북한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그 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 건너 철의 장막에 쌓인 신의주 땅에 "신의주 제1교회"를 섬겼던 고령의 기독교 신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었다. 더욱 기이했던 것은 일명 "지하교회 성도"라고 하는 저들 중에는 주일에 자신들이 다녔던 예배당의 뜰을 돌면서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이 되면 공산화되는 시기에 남으로 내려간 성도들은 통일이 되면 교회 재건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이북지역에는 공산화되는 과정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왔고, 다시 1951년 1.4 후퇴 시에도 많은 이북 동포와 기독교인들이 남으로 내려왔다. 그 후 북한은 엄혹한 공산체제 하에 그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되고 산간 벽지로 추방되어 더 이상 그 곳에는



호러스 알렌 ©Wikipedia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Wikipedia



헨리 아펜젤러 ©Wikipedia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장망성 같은 그곳에 지하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한국교회 역사와 특히 북한 교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한국교회사에서는 1885년 4월 5일 미국 북장로교회로부터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와 미국 감리교 해외선교부로부터 파송된 아펜젤러 선교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가 제물포에 들어온 그 날이 교회사의 원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한국교회사의 디딤돌을 놓은 앞선 선교사가 있었다. 그가 알렌 선교사(Horace Newton Allen, 1858~1932)였다. 그는 1884년 9월에 미국 공사관에 공의로 임명하였는데, 그 해 12월 갑신정변시에 고종과 민비의 최측근인 민영익이 자객에게 테러를 당하여 다 죽어 갈 때에 그를 수술해 살려냄으로 그 공로의 보은으로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광혜원(제중원)이 세워졌다. 이 병원 운영과 조선 의료인 교육에 봉사할 일꾼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병원에 직원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되었고, 아펜젤러는 고종의 승인을 받아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재학당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명의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 덕분에 조선 선교사로 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사에서 알렌을 최초의 한국교회사의 첫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선교사의 신분으로 선교에 전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1887년에는 고종의 부탁으로 워싱턴의 주미공사관의 참찬관으로 박정양 공사를 돕는 조선의 공직자로 한·미 외교사에 디딤돌을 놓는 기여를 하였다. 1890년에는 조선에 주한 미공사가 공백되자 미 정부에 의해 역으로 주한 미공사관의 대리공사를 맡았다.

그 후 1905년 7월에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조약"으로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밀약에 이어서, 그해 11월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한성에 미공사관이 폐쇄되자,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한국교회 역사에 공식인 선교사 신분은 아니었지만, 한국교회사의 정사를 형성하는 데에 개척자였고 선구자적 사역을 한 것이며 나아가서 한·미 외교사에도 크게 공헌한 인물이었음이 확실하다.

이처럼 알렌이 조선 선교의 선두주자로 임명된 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이어서 스크랜턴(Mary F.B. Scranton, 1832~1909) 모자가 들어와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연이어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 이북 지방에 선교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몇몇 선교사가 이에 나선다. 1890년에 미 북장로 선교부로 부터 파송된 사무엘 마펏(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1892년에 캐나다 출신이며 감리교 파송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5)과 그의 아내 로제타 셔워드 홀(Rosetta S. Hall, 1865~1951) 의사 부부와 이어서 1897년에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 선교사가 들어와 이들이 이북의 중심지인 평양을 선교지(Mission Station)로 정하여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이북 지방의 선교가 본격화 되었다.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상대적으로 이남지역보다 이북지역의 선교활동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1893년 2월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사무엘 마펏, 그레이엄 리(Graham Lee, 1861~1916)는 이북 서북지방(황해도, 평안도)으로 선교지 탐사를 위해 순회 여행을 한 끝에 왜 평양이 최적의 선교지 인지를 선교 본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이 평양 도성은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곳으로 선교의 도전 대상지이다. 둘째, 이들은 자기들의 기본에 맞지 않으면 일반인이건 관원들이건 막론하고 돌로 때리는 폭력배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셋째, 인구가 10만명이 넘으며 주민들은 적극적이고 상업적이라 비교적 번성할 여지가 있는 곳이다. 넷째, 한성과 베이징 간을 연결하는 도로 선상에 위치하므로 육로 사정도 관철고 대동강을 통한 해상 교통도 용이한 점으로 볼 때 평양은 찬란한 역사의 도시임이 틀림없다."

이들이 이북지방 곳곳을 답사했던 이유는 조선의 수도인 한성에 선교사들이 집결되자 타

지방으로 균형있게 분산될 필요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선교사들은 파송 국가와 단체가 달랐지만 선교지 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했다. 새로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선교지가 필요했고 선교지가 서로 중첩되지 말아야 했다. 이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12 지파별로 분배했던 것같이 조선 땅의 선교 지경을 나누게 되었다. 먼저 선교사 수가 많은 미국 북장로교는 경기와 이북 관서 지방을 감리교와 나누었고 강원도는 주로 감리교가 감당하게 되었다.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 지역을, 미국 남장로교는 호남지역을, 경상도 지역은 호주 장로교가 맡게 되었다.

그후 한국교회사의 자료를 보면 이남 지역보다 이북지역의 교회의 부흥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개개인의 선교 전략이나 선교사들의 수의 크고 작음에 의한 요인도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 당시의 지역적 또는 사회적 환경 요인이 매우 컸음을 보게 된다. 이는 그 당시의 교회 현황 자료가 입증하고 있다. 1898년 당시 조선의 장로교 전체 교인 수가 7,500여 명이었는데, 평안도와 황해도에 해당하는 서북지방의 교인수가 5,950명으로 전체 교인의 약 80%를 차지하였다.(계속)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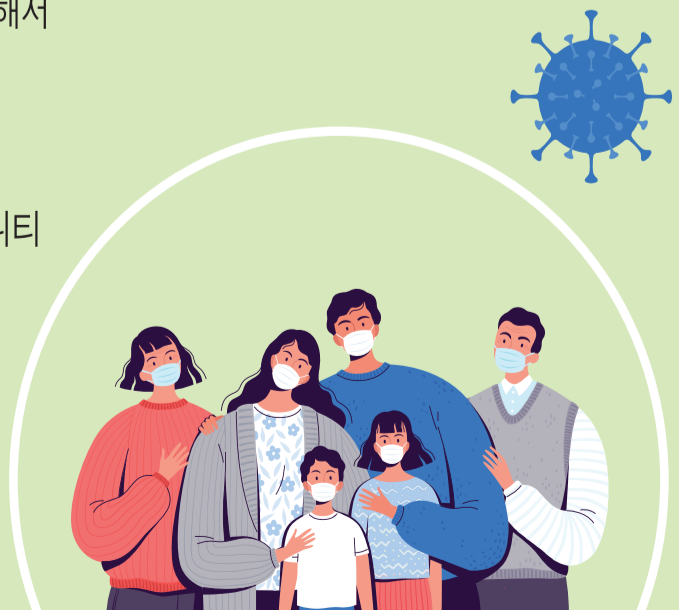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민주 리더십 원하는 사회, 목사는 어때야 하나?

혜암신학연구소, 8일 '목회자 권위' 주제 세미나

혜암신학연구소(소장 김균진 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연구소 도서관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 문제'라는 주제로 2021년 가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소 소장 김균진 박사(연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본 가운데, 발제는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가 했고, 이후 김경재 박사(한신대 명예교수)와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 강석찬 목사(전 초동교회 당회장)가 토론했다.

박명수 교수는 발제에서 "오늘의 한국은 민주적인 사회다. 따라서 한국교회 목사의 권위는 여기에 합당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원하고, 그런 권위를 요구한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초기 목사들, 선교사들에게 민주적 리더십 배워"

그러나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교회 초기 목사들의 리더십은 민주적이었다. 그는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과 더불어 민주주의 제도를 배웠다"며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며 그 운영은 여기에 합당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목사는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민주적인 리더십을 배웠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해방되었을 때 한국교회 목사들은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여 한국에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 "대도시 대형교회 등장... 목사, 자신들 왕국 건설"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교회가 월남 기독교인들에 의해 재구성되면서 목사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박 교수는 "전체 기독교인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북한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월남했을 때, 이들이 세운 교회는 단지 교회가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목사는 보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시골 공동체처럼 기존의 권위가 부재한 산업도시에서 신자들에게 교회는 다



박명수 교수가 8일 혜암신학연구소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른 어떤 곳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였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권위주의적 목사는 주로 신생 개척교회에 국한된 것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그런 교회에서 담임목사는 자주 교체되는 반면, 평신도는 주인의식이 강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를 능가하는 권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당회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권위주의

적인 목사 대신 전권을 가진 당회가 등장하게 됐다"고 했다.

◆ "개신교와 민주주의 원칙·성령의 역사 위에 서야"

박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목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목사 시대를 비판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목회자를 무력화시켜 하나의 기능인으로 만드는 위험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박 교수는 그 대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목사의 권위는 성령론적인 기초를 가져

야 한다 △개신교 목사는 개신교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신교 목사는 민주사회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야 한다 △한국 개신교는 목사의 리더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며 "첫째는 개신교의 원칙이다. 만인사제직에 입각해 평신도의 위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목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둘째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해,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해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다. 목사는 신자 개개인의 신앙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목사의 행동도 때로는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셋째는 성령론적인 강조다. 교회는 종교공동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나 학벌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 위드 코로나 첫 주일, 줄 서서 입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7일 주일예배에 참석한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위드 코로나' 첫 주일을 맞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창세기 6:5-10)'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성도들은 이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위드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르면, 점중자들만 입장할 경우 인원 수 제한이 없다.

성도들은 본인 확인 후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는 등 오랜

만에 예배당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예배에서는 2년여 만에 성가대가 다시 찬양을 드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7일 주일을 '예배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로 선포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며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곧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로가 약점을 몰고 뜯고 허물을 깨는 일에 정신이 없다. 그 대신 서로 칭찬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저쪽은 무조건 나쁘니 나를 뽑으라고 하지 말고, 저분 다 좋는데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경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시편 1:1-2)"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모든 불가능을 이기

고 하나님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믿음과 열정,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셨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사 람들이 구름떼처럼 울려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기도에서 그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특별히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 다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원치 않게 동성에 빠져 몸과 마음이 망가진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8일부터 2주간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 감사를 앞두고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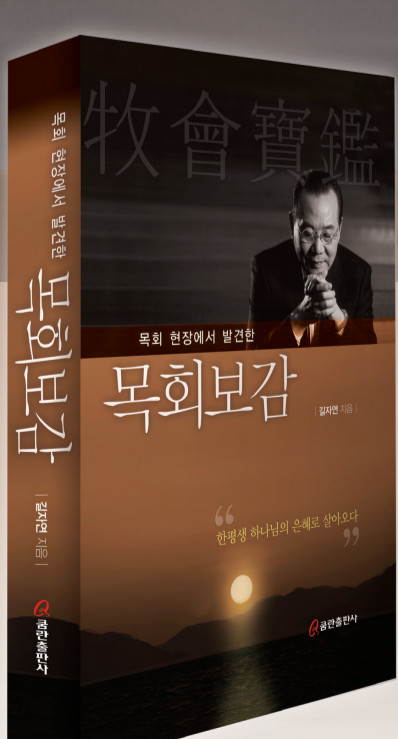
이대웅 기자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김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언"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김자연 지음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목회 현장에서의 발견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숭한 직책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정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북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대광인상 수상(2003),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트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7가지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김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목회 현장에서의 발견

목회 현장에서의 발견한 목회보감



목회 현장에서의 발견한 목회보감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래문 일대 거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한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함전교회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신의 낙조처럼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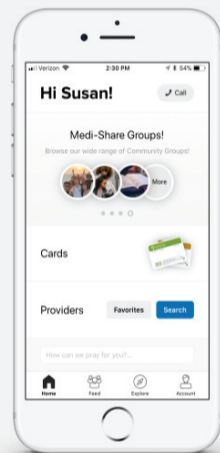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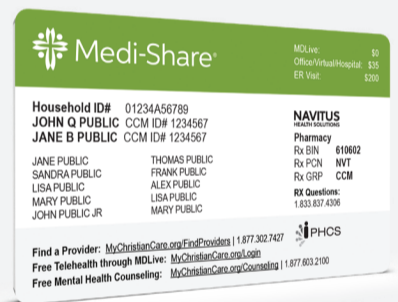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메디세어는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 847-901-32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zusa2@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송회침례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하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차세대) 오후 9:30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오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주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세력자,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충성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ken 코너)
T. (213)386-2233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목 부속동) 위치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점상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지역, 정학 지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천.초 정신의 호를, 바르고 화평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전기도회 오후 8:00
한동교회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서로를 밝히며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태복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형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침례전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최희 역 담임목사
주일 새벽예배 오전 8:00 OC새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EM 오후 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양영양회 새벽 7:45 사백도 홀 줄 (오전 5:30) 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hinold St., Northridge, CA 91325, (818)565-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1: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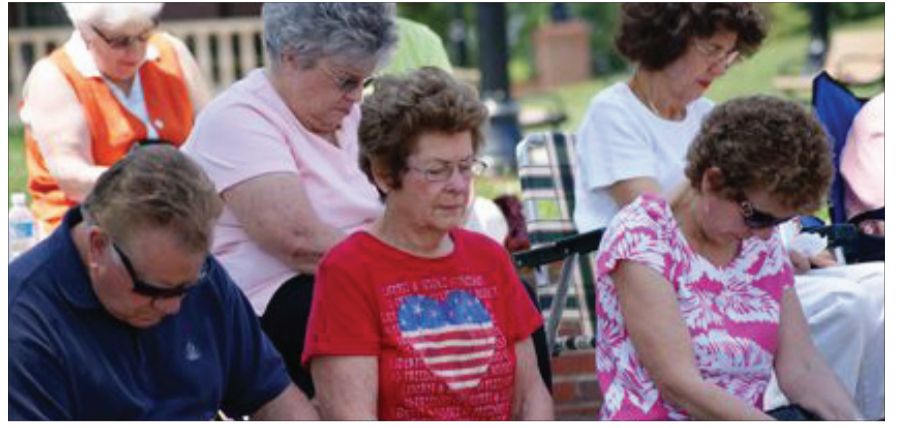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취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미국인 절반 "이슬람, 미국 가치와 충돌" 종교 지도자 신뢰도 33%



국가 기도의 날에 기도하는 미국인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2021년 미국인의 가치관 조사에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과 “의료 서비스”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인의 3명 중 1명이 “종교 지도자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했다. 미국 공공 종교연구소(PRR)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주요 문제 동향 가운데 미국인의 과반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54%)과 의료 서비스(49%)를 꼽았지만 작년에 비해 각각 6%, 7%씩 감소했다. 또 미국인 10명 중 4명은 테러리즘(47%), 주거비 및 생활비 증가(45%), 이민(44%), 기후변화(44%), 범죄(43%), 빈부격차 증가(40%)가 중대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집단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64%)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 가운데 종교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74%)이 가장 높았으며, 백인 가톨릭 신자(73%), 흑인 개신교인(67%)이 그 뒤를 이었다. ‘종교적 다양성’과 관련해, 미국인의 38%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24%)은 “주로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을 더 지지했다. 기독교인이 주류인 미국을 더 선호한 신자로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57%)이 가장 높았고, 흑인 개신교인(33%), 기타 기독교인(24%), 백인 가톨릭 신자(23%),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19%), 주류 백인 개신교인(18%), 비기독교인(4%), 무교인(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은 10명 중 4명(38%)이 주로 기독교 신자로 구성된 미국을 선호했으며, 무소속은 20%, 민주당원은 14%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면 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미국을 선호한 민주당원은 55%, 무소속 41%, 공화당원 17%로 나타났다. 이슬람에 대한 시각과 관련해, 미국인의 절반(50%)은 이슬람의 가치는 미국의 가치 및 삶의 방식과 충돌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에 동의한 미국인은 2015년 56%에 비해 줄었으나, 2020년 43% 보다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의 74%가 이슬람의 가치가 미국과 상충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민주당원(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해 공화당 67%, 민주당 26%보다 크게 늘어났다. 김유진 기자

저스틴 비버 “건강한 결혼 생활 비결, ‘상처의 치유’”



저스틴과 헤일리 비버 부부. ©저스틴 비버 페이스북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의 아내인 헤일리와 건강한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와 아내 헤일리는 최근 유다 스미스 목사 부부가 진행하는 결혼과 관계성에 관한 팟캐스트 ‘In Good Faith’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왜 결혼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팟캐스트에서 비버는 “트라우마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건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헤일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했을 때, 여전히 내가 극복해야 할 많은 피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통해 내 마음을 보았다”고 했다. 헤일리는 “남편이 치유 과정을 거쳐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여정은 부분적으로 내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가 참아내고 있고, 결혼을 통해 연합하는 자리에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괜찮다. 그냥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헤일리는 결혼까지의 여정에 대해 “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스틴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다. 저스틴 비버는 미래의 아내를 만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기를 쓰며 시간을 보냈던 과거의 밤들을 회상하면서, “나는 헤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 그녀인지 몰랐다. 그저 아내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했을 뿐이다.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분도 나를 위해 내 아내를 준비시키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의 의미와 진지함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다 스미스 목사는 “둘 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의 모든 팬들은 ‘가족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말을 듣고 웃고 추억을 만드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큰 일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두 분 때문에 가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스미스 목사는 “저스틴이 결혼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제게 많은 의미를 주었다. 우리 넷에게 결혼은 정말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결혼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저스틴에게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법원, '백신 의무화' 반대한 경찰노조 승소 판결



병원 앞에서 시위 중인 직원들의 모습. ©KHOU 11 보도화면 캡처

“접종 명령 불이행 시 해고 또는 무급휴직 조치” 중단

미국 법원이 경찰노조가 시카고시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 달라고 제출한 신청을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7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의 레이먼드 미첼 판사는 1일 시와 경찰노조 간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시 당국이 백신 접종 마감 기한을 오는 12월 41일까지로 못 박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토록 한 조치에 대해, 미첼 판사는 임시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그는 시 정책 따라 백신 접종 상태 보고와 코로나19 검사 의무 또는 주 2회 검사는 유지하도록 했다.

미첼 판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고 의무 자체는 최소한의 침해이며, 특히 경찰관이 이미 고용주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이들 당사자들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내고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이 지난달 15일 이전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고했다.

시는 또 의료적·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도록 했다. 또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또는 무급휴직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카고 경찰노조가 반대하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브라운 경찰청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직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찰관의 해고를 제안했다.

김유진 기자

PCUSA 여성 목회자 절반 “성차별 경험했다” 보고



PCUSA 본부 전경. ©COURTESY OF PCUSA

미국 장로교회(PCUSA) 소속 여성 목회자 중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미국 장로교회 리서치 서비스(PCUSA Research Services)’가 발표한 ‘리더십의 차별·기회·투쟁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여성 목회자의 58%가 교단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목회자는 4%만이 교단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연구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 4,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이다.

조사에서 “나이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 목회자는 63%였으며 같은 답을 한 남성 목회자(21%)보다 3배 더 높았다.

“민족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여성 목회자 중 10명 중 7명(70%)은 “인종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반면 남성은 12%만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백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예외가 존재했다. 백인계 여성 목회자는 1.1%만이 인종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반면, 남성은 2.5%가 인종적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여성은 또 남성 응답자보다 ‘리더십 능력에 대한 인정’, ‘공격적 발언들’, ‘타인에게 인정받는 업무 부재’, ‘낮은

보수’ 등 지도력과 연관된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3배 더 자주 지도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 40세 미만인 여성 목회자의 71.1%가 “지도자로서 인정받기가 힘들다”라고 답했으며, 여성 목사 중 42%는 “성별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됐다”라고 답했다.

PCUSA 리서치 서비스 연구원인 셉 페인과 수잔 바넷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젊은 설문 응답자 및 소수 인종은 모두 남성, 장년 및 다수 인종보다 더 자주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다”라고 보고했다.

페인과 바넷은 “이는 예상한 것과 일치하지만, 보고된 차별의 정도는 놀랄만하다”면서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나 괴롭힘보다 덜 만연해 있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인종 순위는 흑인이 47%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35%, 아시아인 21%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1956년 미국 장로교회의 전신인 ‘연합 장로교회 (United Presbyterian Church)’에서 여성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마거릿 타우너 (Margaret Towner)를 기념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 발표했다.

김유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일-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7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7: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3부 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새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족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매월 두번째 금)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학교 오전 9:30(화-토)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문예배 오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8: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연구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You Tube

나이지리아 성도 100명 납치돼... “무법 상태로 극단주의 번식”

현지 기독교계, 정부 비판하며 세계 교회에 기도 요청

나이지리아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발생한 후, 기독교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주일 나이지리아의 카두나 카카우 다지에 있는 임마누엘침례교회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이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무장한 괴한들이 교회를

습격해 교인들을 향해 발포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련의 공격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 기독교인들의 거둬들인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 카두나 지부 조지프 하야브 목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 아프리카의 대변인

조 뉴하우스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 지역의 불안정이 극단주의자들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나이지리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번 납치는 소위 도적들의 대담성 및 한계 없이 증가하고 있는 공격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라며 “지속되고 있는 무법 상태가 극단주의의 이상적인 번식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에메카 우메그발라시 제공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석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주

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강해진 기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 포로’ 최초 언급

한국 정부는 3년째 불참할 듯



©pixabay

지난 6일 공개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최초로 ‘국군포로’가 명사됐다.

지난달 말 유엔 총회가 제3위원회에 제출한 이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성폭력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형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통제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도 언급됐다. 한국전 당시 북한측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그 후손들이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2014년 작성된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 이후 최소 5만여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채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국군

포로를 전사자로 처리하는 등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 포로가 돌아왔으나, 대부분 자력 탈출이거나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을 촉구하거나 유엔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적절한 코로나19 백신의 전달과 배포를 위해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회분을 배정하는 등 백신 공급을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와 준비 절차 미흡 등으로 실제 공

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EU가 이를 대표해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올해로 17년째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인권 유린의 책임 추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3년째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진 기자

‘박해받는 교회 위한 세계 기도의 날’ 7일부터 시작

올해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IDOP)’은 1996년 세계복음연맹(WEA) 산하 종교위원회가 제정한 이후, 매년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토마스 슈마허 WEA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올해 우리는 전 세계 교회들을 불러 형제자매들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슈마허 사무총장은 “기도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IDOP는 교회가 박해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조직됐다. 교회의 기도를 도울 다양한 자원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WEA 글로벌 이사인 자넷 엠 버킹엄 박사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압박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고 세계적 분쟁은 더 많은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IDOP는 세계 교회가 기도로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박해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매년 찾아오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 나이지리아, 네팔, 소말리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알제리, 이란, 에리트레아 등 주요국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이유로 핍박을 받으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즈 USA 회장은 CBN과의 인터뷰에서 “3억 4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북한 같은 곳은 성경이 적발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곳이 전 세계에 있다. 여러분도 괴롭힘과 핍박을 당할 수 있으며,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 세계 기독교 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등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세계 기도의 날에 동참하고 싶은 교회들은 오픈도어즈 USA의 공식 웹사이트(open-doorsusa.org)를 통해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앱(Pray for the Persecuted)’을 다운로드하거나 IDOP.org를 방문해 홍보 영상, 팸플릿 및 기도 안내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해진 기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포항공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203A, Los Angeles, CA 90006
Tel: (323)9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정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현역 이종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책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지혜

책을 존중할 때 보화를 선물해 줍니다. 존중은 좋은 것을 끌어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사람들은 최상의 것을 선물해 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좋은 것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막 6:3). 예수님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막 6:5).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막 6:4).

책을 읽을 때 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책을 쓴 저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책을 폼하(貶下)하면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책을 존귀히 여기고, 책의 가치를 인정하고, 책을 쓴 저자를 존중할 때 책에서 많은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책

에서 캐내는 보화는 지식과 정보와 지혜입니다. 책 속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책을 쓰지 않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10년, 20년 또는 평생 동안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책에 담습니다. 물론 책 중에는 읽어서는 안 될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저자가 심려(深慮)를 기울여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사랑할 때 보화를 선물해 줍니다. 책을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책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책을 즐기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극치는 즐거움과 누림에 있습니다. 사랑은 배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잘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그 과목을 사랑했다기보다 그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선생님이 가르친 과목을 가장 잘 배운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즐거게 되고, 즐기게 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가슴에 새깁니다. 책을 사랑한다는 것은 책을 쓴 저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신뢰할 때 보화를 선물해 줍니다. 책을 신뢰하라는 것

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길은 도(道)입니다. 도(道)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치(理致)를 의미합니다. 길은 인생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길은 곧 생명입니다.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책을 신뢰하라는 것은 책을 우상화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책을 신뢰하라는 말은 책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자세는 냉소주의입니다. 책을 읽어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냉소주의는 아주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책을 읽을 때 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책을 읽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읽으십시오. 물론 한 권의 책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한 권의 책이 담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기대를 갖고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제가 소개하는 책 읽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딤후 3:16).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요 14:6).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 의해 읽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게 됩니다. 깊어 가는 가을, 성경과 좋은 책들 속에서 보화를 캐내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시행되었다.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은 1938년 초 일제가 전국 노회에 참배를 강요한 때부터였다. 당시 전국에서도 가장 교세가 강하고 결출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평북노회가 노회장 김일선의 주도로 2월에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평양 장로회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성토했다. 이 때 평북노회 소속 학생 장흥련(張弘璉)이 격분하여 평북노회장 김일선이 신학교 입학 기념으로 신학교 교정에 심어 놓은 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찍

어 버렸다. 각 노회 소속 학생들은 노회 단위로 신사불참배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평양 경찰에서 이런 기미를 알아차리고 신학교에 들어닥쳐 학생 일곱 명을 체포하였다. 저들은 또한 학생들의 강의를, 설교원고 등 여러 가지 문서를 압수하고, 교수 박형룡과 김인준(金仁俊)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일제 경찰이 신학생, 교수를 체포, 구금한 일은 당시 「동아일보」 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신학교 이사장 방위량(W.Blair), 교장 나부열(S.Roberts) 등 선교사 교수들도 신사참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학교가 폐쇄되는 운명에 봉착하게 되었다. 교장 라부열은 “우리 미션회의 사업에는 어느 것에도든지 기독교의 신조를 기초로 하여 실행될 것이다. 이 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에 준거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지금 이 정세로는 개학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이 학교를 개학할 수 있을 시기를 엿보고 있을 뿐인데, 아직 그것을 발견치 못하였다. 어떠한 때가 개학할 수 있는 시기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언제든지 개학을 할 수 있어서 이 신학교만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글 속에서 신학교를 폐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리에 어그러진 상태에서 개학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1901년 시작된 교단 총회 신학교가 4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교역자를 양성하여 오다가 신사 불참 결의로 1938년 9월 무기휴교를 선언함으로써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당시 재학생들은 교수들이 통신으로 강의를 보내고 시험도 치게 하여 졸업시켰다. 교수들은 「신학지남」의 편집, 총회가 추진하던 주석서의 번역 등의 일을 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다른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은 교파와 선교사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견해를 각각 달리하였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대체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장로교 선교사들은 대체로 반대의 입장에 있었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적극 지지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연희전문 교장이었던 원한경(H.H.Underwood 元漢經)은 신사참배가 불법으로 선포되자 평양 경찰부장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동 결의안에 축의(祝意)를 표하였고, 연희전문학교 사업 보고 석상에서 “중내 신사 불참배를 고집하여 역사 있는 제 학교를 폐쇄한 것은 크게 유감된 일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신조상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물론 교육자로서 학교가 폐쇄되는 것보다 참배하면서 교육을 계속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가 근본적 기독교 신앙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면서 교육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와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했다. 캐나다 선교부는 1938년 10월 21일 신사참배를 할 것과 교육기관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는 상반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하였다.

한편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남 광주에 모여 차후의 행동을 결의하였는데, 모든 선교사는 각 소속 노회로부터 탈퇴하고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운동을 계속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선교부는 개교회가 전도 사업을 의뢰할 때 이에 응하기로 하여 노회는 탈퇴하되,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들은 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과 목사들을 규합하여 신사참배 노회 내지 총회를 구성하여, 장로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 나갈 구상을 하였다. 그러나 동년 10월 캐나다 선교부 대표 맥길(McGill)이 함남경찰서 고등과장을 방문하고,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들이 경영하던 교육기관들을 계속 운영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역시 장로교회 선교부들 간에도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파 선교사들은 초지(初志)를 굽히지 않고 노회를 탈퇴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한 적지 않은 목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한국교회와 신사참배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4:1-5



서울성모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중략)...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또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미신 우상 섬기는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꾸지는 못하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1-3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했습니다.

1.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성령계 이끌리며 쓰임받기 힘써야 하는 곳인데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 가고 있음을 꾸짖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통칭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를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만 알아야지 우리를 앞세워서 어떤 출세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상당히 행세하는 권력을 장악 한다거나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바나바나 베드로가 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하늘나라 가게 하는 목적으로만 힘써야지 자기기쁨으로 모이는 그룹을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忠誠(충성), 즉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혀 거짓이 없이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3-5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판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도 잘 못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파 그리고게바파도 있다보니 가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나쁘게 말하고 불신하도록 이간질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姿勢)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3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설 수 있는 교훈이 되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올바르게 비판, 판단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인색하고 자신을 두고는 무척 관대합니다. 남의 눈의 티는 하나도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도, 뽀 생각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 앞잡이들로부터 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행패부리며 못살게 구는 것을 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령의 앞잡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계 요긴하게 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 분노하게하며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충고로 받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도전해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는 꼬투리를 잡고 나를 시험도 하고 대적도 하고 훼방도 하며, 또 지옥에 보내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을 때 전신 갑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선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초보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뿌리치는 것은 허세이고 교만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앞에서의 두 판단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로부터 비판받을 일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책임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의롭다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 합니다. 그렇게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기적 사고방식의 틀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고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마지막 심판 날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비판하려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주기를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상벌의 심판이 있게 될 때는 걸로 행한 흔적만 보시고 판단하셔서 야단치시고 상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지 그 깊은 마음의 뜻을 다 밝혀내십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목사님 앞으로 가져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인양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조차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한 마음도 수고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인격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껌데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김을 다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설혹 자기가 준비를 다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욱 성숙된 여유있는 믿음입니다. 목사님을 공개하는 자리에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애쓰기보다 나를 숨기고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 드리는 지혜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는 판단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늘 영광에 결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는 했지만 공적은 그 사람에게 돌리는 지혜로 예수님 재림 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감추인 공적까지도 다들 추어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고 진짜 믿어서 사는 신앙인입니다.

성모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I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지진과 폭력으로 어려운 아이티 투씨에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이티 투씨에 마을 소망학교 어린이들에게 학교 가방을 선물합니다. 지진과 폭력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가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등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아이티 재해 복구를 후원해 주세요!!”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토마 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 (2)

은혜를 알면 베풀고, 은혜를 잊으면 계산한다

강도 높은 지진보다, 강도 같은 사람 더 무서워
아이티가 겪어야 했던 불평등과 고통 알려줘
아이티 지진이 하나님 심판? 하나님 마음 몰라

강도 7.0의 지진보다, 강도 같은 사람이 더 무섭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섬나라 아이티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난다. 사망자 20만 명, 부상자 25만 명, 이재민 150만 명. 180억 달러의 지진 피해액.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2010년 아이티 지진은 한 번 일어났지만, 200년 전부터 이 같은 일은 매년 되풀이되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강도 높은 지진이 아니라 강도 같은 사람이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그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는 당시 아이티가 겪어야 했던 불평등과 고통을 알려준다. 아이티는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경제적 속박은 계속되었다. 독립한 아이티 국민들이 프랑스 노예주들에게 노예 값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티의 독립으로 노예가 사라진 프랑스 노예주들은 그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아이티는 1억 5000만 프랑을 갚아야 했다. 아이티는 1950년이 지나서야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

돈을 갚는 과정에서 프랑스에게 갚아야 할 돈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미국은 그 돈을 다 받아 내기 위해 1915년부터 1934년까지 아이티를 강제 점령한다. 강도 높은 지진보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지진이 발생하자 미국의 한 목회자는 아이티의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망언을 했다. 역사를 모르는 무식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무지다. 목회자들이 시대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현 시대의 불평등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결과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1부와 2부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 불평등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1부에서는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불평등은 사라졌

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해졌다. 2부에서는 노예 제도와 식민지 제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진 점을 말해준다.

영국, 노예제 폐지하면서 주인들에게 보상해줘
노예제도 폐지됐지만, 노예주들은 더 부자 됐다

토마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과연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2부에서도 이어진다. 2부는 '노예제 사회와 식민사회'가 사라지면서 생긴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1833년,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했다. 이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노예들의 노동력을 보상해 주기로 결정한다.

그 동안 수고한 노예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다. 노예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노예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으니, 노예 소유주들에게 그 값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당연히 정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었다.

그렇게 당시 노예를 가진 이들에게 총 보상한 금액은 2,000만 파운드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유로의 돈을 국가가 노예주에게 보상해 주었다.

당시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체 영국 인구 중 약 4천 명뿐이었다. 그들은 그동안 노예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재산을 늘려가던 사람들이다. 영국 국가는 그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 1,200억 유로의 국채를 발행했다. 1,200억만큼 빚을 졌다는 말이다.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노예주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서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 과도한 빚을 안기고 이자를 받으면서 착취를 이어가는 모습. 이것은 당시 유럽

열강들의 전형적인 착취 공식이었다.

18세기 유럽인들은 중국(청나라)로부터 비단, 직물, 도자기, 차, 향신료 등을 수입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교역 때문에 유럽이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

이에 영국은 청나라에 아편 수출을 늘리고,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위기를 느낀 청나라 황제는 아편 수입을 중지시키고, 밀수 아편을 불태운다. 이것을 빌미로 영국은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해 공격하고, 두 번에 걸친 아편 전쟁이 발생한다.

결과는 모두 청나라의 완패. 이후 청나라는 아편을 합법화했고, 막대한 전쟁 보상금과 불태운 아편에 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했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을 감수하게 되었다.

토마 피케티가 이처럼 과거의 노예 제도와 식민지 사회를 말하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불평등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은 노예 제도와 식민지 건설이라는 폭력적인 착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불평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이 이것과 같은 맥락임을 보여주려 한다. 그는 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빌 게이츠와 기타 테크노 억만장자들이 수십 년간 기초 연구와 육성에 투입된 수천억원의 공적자금 없이 자신들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거래를 거의 독점하지 않고 공적 지식을 사적 특허로 가져가는 그들의 권력이 현행 법률과 조세 제도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 않고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매출을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착각한다. 과연 '나의 노력'으로만 번 돈일까? 그들의 매출은 정부의 지원과 국가의 기금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국가 시설을 잘 이용한 것이 아니다.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판매는 소비자를 독점하는 이득도 누린다. 또한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내가 번 돈'이 온전히 나의 노력만을 가지고 번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회의 도

움을 받았고,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결코 기업과 부자들 개인의 수고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소유자 사회'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모두 내 것이라 주장하고, 모두 내 노력이라 말한다.

한 마디로 은혜를 잊었다. 다른 사람 덕분임을 외면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내 것을 나누어야 하는가? 은혜를 잊으니 나눔이 억울하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안이고, 말씀 원리가 답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아본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풀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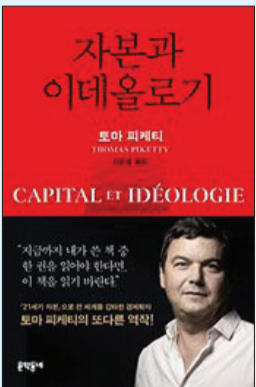
반대로 은혜를 잊으면 계산이 들어간다. 내가 흘린 땀을 계산하고, 내가 흘린 눈물을 계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100원도 아까워진다.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나누지 못한다.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1부와 2부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이 결국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 많다. 한 마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를 알면 계산하지 않는다. 기꺼이 베풀게 된다.

점점 나눔이 사라져 가는 대한민국. 그 대안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성도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사람이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사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안이고 말씀의 원리가 답이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 안준범 역
문학동네 | 1,297쪽

현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타전하는 세계 경제위기와 심화된 불평등을 돌파할 긴급하고 대담한 제안!

한 사회 내부 혹은 국가 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으로 경제가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해나가는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속한 체제와 역사가 보다 평등한 쪽으로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궤적과 그 분기들의 가능성을 각 장에서 타진해보고 있다.

드림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찾습니다.

- 1. 분야
 - 찬양팀 건반 반주자
 - 중고등부 전도사

2. 파트타임

3. 연락처

626-793-0880
dreamchurchresume@gmail.com



오렌지 카운티 지역 방 있습니다



월 600불

애나하임 가정집 2층 베드룸 렌트
젊은 남자분 직장인이나 학생 환영

714-337-6888

전화 혹은 텍스트 문자 주세요.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멀티슈, 주일예배, 교과교과, 마크업소통발달, 교과교과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임플란트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할리우드 영화 <둔> (下)**

영화 <둔> 서사, 신앙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

환상을 역사로 바꿔놓기, 역사적 예수와 영화 <둔> 과도한 수준의 종교 통합 지향하는 종교다원주의, '역사적 예수' 방식으로 기독교 메시아 신앙 각색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정반대 방향 이미지 심어

◆역사와 허구: 역사 이야기의 강점을 살린 역사소설

역사 이야기는 대중문화 영상 콘텐츠의 단골 소재 가운데 하나다. 역사 콘텐츠의 장점으로는 일단 서사의 개연성을 지목할 수 있다.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서사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개연성 측면에서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콘텐츠보다 관객이나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다루는 것 또한 강점이다.

대부분 유명한 사건들을 배경 삼아 혹은 유명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관객에게 서사를 비교적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흥행에 유리하다.

여기에 더해 역사 콘텐츠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자기 나라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반복하는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야 기획 단계에서 투자를 받기가 쉽고 언론을 통해 홍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상 콘텐츠 선진국인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방송가나 영화계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역사 대중문화 콘텐츠가 끊임없이 제작되어 왔다.

우리 한국 대중문화계 역시 역사 콘텐츠에 많은 힘을 들여왔다. 일본 NHK 대하(大河)드라마 시리즈 포맷을 본따 만든 KBS 대하드라마 시리즈가 수십 년 간 제작되어 왔고, 각 지상파 방송국도 질세라 보통 1년에 한 편 이상 수십회 분량의 역사 드라마를 제작하곤 했다.

다른 소재의 드라마 투자에는 인색하게 구는 방송국들도 유독 역사 관련 드라마에 대해서는 자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영화계 역시 역사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을 들였고, 또 그에 비견되는 큰 흥행 실적을 거두곤 했다. 당장 한국 영화 역대 관객 수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위는 2014년 개봉한 <명량>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명량해전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후 8년 동안 어떤 영화도 <명량>의 관객 수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갖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부실한 고증과 의도적 역사 왜곡은 이 분야에서 커다란 위협이다.

그래서 소설, 드라마,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은 역사를 다룬 서사가 갖는 장점을 활용하면서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냈다.

일단 그 시초는 실제 역사 기반 창작물인 역사 소설이다. 이 장르는 꽤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서구 쪽으로는 토마스 맬러리의 <아서 왕의 죽음>(1485), 동아시아 쪽으로는 나관중의 <삼국지연의>(14세기경)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역사 소설은 근대를 거쳐 오늘 날까지도 끊임없이 창작되고 있는 인기 장르로서, 큰 줄거리는 실제 역사를 따르되 중간의 작은 이야기들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각색해, 문학적 감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역사와 예수: 역사적 예수 사상을 반영한 SF <둔>

그러나 역사 소설은 고증 및 역사왜곡 논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큰 줄거리는 여전히 현실 역사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역사물의 강점을 살리려는 또다른 방편으로 개발된 것이 SF 혹은 판타지 대하소설이다.

이 방면에서 유명한 작품으로는 J. R. R. 톨킨의 레젠다리움(<실마릴리온>, <호빗>, <반지의 제왕> 등),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 프랭크 허버트의 <둔> 시리즈, 그리고 최근작인 조지 마틴의 <얼음과 불의 노래>(<왕좌의 게임> 시리즈)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아예 현실 역사와



역사적 예수 사상을 반영한 SF 종교서사 <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뒤, 거기서 작가가 마음껏 상상력을 동원해 현실 역사의 소재들을 가져다 서사를 구성한다. 이 전략은 상당히 교묘하다.

역사적 개연성에 대한 책임을 조금만 지켜도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애초 환상에 가까운 판타지나 SF 장르에 현실성을 부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다.

영화 <둔> 역시 이런 방식으로 그 명성을 확보했다. 물론 그 설정이나 서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폼파하기 어려울 만큼 치밀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 역사의 이야기들(특히 고대와 중세 시기 서양과 중동 지역 종교사)을 별 책임감 없이 버렸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둔>은 일종의 유사 종교 서사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둔>의 종교서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과도한 수준의 종교 통합을 지향하는 종교다원주의이다.

<둔>에 등장하는 종교 베니 제서릿은 현실의 가톨릭 신앙 이념('가톨릭'은 전세계적 보편교회를 의미)을 아득히 넘어서는 전 우주적 보편성과 포괄성을 보인다.

두 번째로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현실 종교 역사로부터 역사적 개연성을 빌려와서 19세기 유행했던 '역사적 예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독교의 메시아 신앙을 각색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면 부인하고

그를 현실에 실제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그에게 덧붙여진 온갖 초자연적, 신화적 서사를 배제하고 그의 현실적인 역사적 삶을 조명하려 한다.

성경에 대한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 혹은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의 부산물이었던 역사적 예수 연구는 19세기 중후반 현대 무신론의 선구자인 포이어바흐, 그리고 현대 유물론의 선구자이자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 마르크스 같은 이들의 반기독교 사상을 낳는 산파 역할을 하였다.

<둔>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드 서사는 말 그대로 문학계의 역사적 예수이다. 작품 속 폴 아트레이드는 인류의 멸망을 막아낼 희망이긴 하지만, 탄생 과정을 따지고 보면 애초 과학과 우생학, 그리고 광신적 종교 이념이 뒤섞여 만들어진 혼종에 불과했다.

또 건조기후 지역(사막)을 근거지 삼아서 제국에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을 창시자로 삼는 종교를 일으키지만, 그 종교가 나중에는 자신을 과도하게 신격화해 온갖 분쟁을 일으키자 좌절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폴 아트레이드에 대한 <둔>의 저자 허버트의 시각은 19세기 당시 다비트 스트라우스 같은 역사적 예수 연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각과 흡사하다.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의 절박한 메시아 이념이 낳은 비현실적 부산물이고, 현실 역사

의 예수는 그저 실패한 사회변혁을 이끈 현자 혹은 종교 사상가였을 뿐이다.

최근 CG 기술의 발달과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빠른 성장은 판타지 대하소설, 혹은 SF 대하소설의 영상화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 동안 소설 속에서 문자로만 표현되었던 웅장한 스케일의 장면 묘사가 가능해지고, 비교적 긴 호흡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알맞은 TV 시리즈 포맷이 대중문화계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실마릴리온>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작품을 온전하게 영상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둔>은 TV 시리즈가 아니라 두 편짜리 영화로 제작되었지만, 최근 대중문화계의 조류가 이 작품의 영화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설 <둔>은 1960-1970년대 당시 히피 종교운동과 맞물린 기독교 신앙의 문화적 영향력 약화를 증명하는 문화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추세는 다시금 발전된 영상기술과 영화 연출력에 기대어 이루어진 <둔>의 영상화에 의해 재확인되고 있다.

영화 <둔>에는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정반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본 작품의 서사에 대한 신앙의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